오는 7일 광주문예회관에서 개막되는 오리지널 뮤지컬 '캣츠'는 제목 그대로 '고양이'가 주인공이다. 무대 위 고양이들은 자신들에게 조명이 비추지 않아도 끊임 없이 다른 동작을 하며 움직인다. 작품에 등장하는 고양이 한마리, 한마리에 관심을 가지면 더 재미있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캣츠'를 풍성하게 하는 대표 고양이들을 만나보자.

9월 고양이들의 대습격 '캣츠'

'메모리' 부르는 고양이는?

매력적인 음색 올드 멍커스트랩

작품을 이끌어가는 회색 고양이다.〈사진 가운데〉 무대 중앙에서 꼿꼿한 자세로 고양이들을 돌보는 '새끼 고양이'의 보호자로 불린다. 이번 공연에 캐스팅된 션 레니는 훤칠한 키와 당당한 몸짓, 매력적인 음색으로 관객을 사로잡는다.

무대에서 우릴 찾아보세요

매혹적인 고양이 그리자벨라

뮤지컬 넘버 중 가장 유명한 곡 중의 하나로 꼽히는 '메모리'를 부르는 고양이다.

한 때 젤리클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양이었지만 지금은 늙고 외로운 고양이가 되어 돌아왔다. 낡고 찢어진 옷이긴 하지만 엘리자베스 여왕의 옷처럼 둥글게 서 있는 망토 깃과 반짝이는 원피스에서 과거의 매력적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1부와 2부에서 두 번 '메모리'를 부른다

암코양이들의 '완소남' 럼 텀 터거

섹시한 바람둥이 고양이다. 그가 등장할 때면 그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한 암코양이들의 애교가 넘쳐난다. 그와 고양이들이 함께 부르는 '럼 텀 터거'는 가장 흥겨운 곡 중의 하나. 럼 텀 터거의 섹시한 골반 춤은 여성 관객들의 환호성을 자아낸다. 반짝이는 벨트와 큰 갈기 같은 깃이 달린 조끼 등의 상도 화려하다.

40바퀴 회전 미스토펠리스

반짝이로 장식한 까만 의상을 입고 등장하는 마법사 고양이. 공연 내내 합창 부분에서도 거의 노래를 부르지 않고, 오직 '춤'으로만 승부하는 캐릭터다. 한쪽 다리를 들고 40바퀴 넘게 회전하는 모습에서는 관객들의 환호와 박수가 이어진다.

그밖에 아기 고양이로 2막이 시작되면 한국어로 '메모리' 부분을 짧게 부르는 실라밥, '캣츠'의 대표곡 중의 하나인 '스킴블샹크스'를 함께 부르는 기차 검사원 고양이 스킴블샹크스, 말썽쟁이 도둑 고양이 커플 몽고제리와 럼플티저, 극중의 유일한 악당 고양이 맥커비티,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게 해주는 극장 고양이 거스 등 매력적인 캐릭터가 등장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선지자 올드 듀토로노미

젤리클 고양이들의 리더이자 선지자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고양이를 뽑는 인물이다. 그가 부르는 2막의 첫 곡 '행복의 순간들'은 정통 성악곡을 연상시키는 음악으로 보통 클래식 전공자를 캐스팅한다. 이번 내한 공연에는 지난 2003년 공연에 이어 한국인 임한성씨가 출연한다. 막간에도 무대 위에서 관객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다.

박진현의 문화카페

메세나, 문화선진국의 지표

미국은 문화정책이 없는(?) 독특한 나라다. 우리나라의 문화관광부, 일본의 문화청과 같은 정부차원의 부서가 없는 데서 나온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미국은 문화선진국으로서의 위용을 마음껏 뽐내고 있다. 여기에는 독립된 행정기관으로서 국립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스미소니언 재단 등의 역할이 크다. 이들 문화기관은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으로 나뉘어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하지만 이들 못지 않게 문화강국으로서의 미국을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 메세나로 대변되는 기업의 문화후원이다.

전통적으로 기부문화가 발달된 미국은 특히 대중들의 문화향유를 지원하는 기업의 메세나가 활발하다. 뉴욕 현대미술관의 포드 패밀리 프로그램(Ford Family Program)은 좋은 예다.

문화시민양성을 모토로 내건 이 프로그램은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인 포드사가 후원한다.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관람객들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참가자들은 미술관 투어, 작가와의 대화, 체험행사 등을 통해 예술관을 키운다.

비단 미국 뿐 만이 아니다. 최근들어 국내에서도 기업들의 메세나 바람이 거세다. 열풍의 진앙지는 울산. 전국 최대 공업도시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기업들이 수준높은 공연과 전시를 유치하는 가 하면 지역문화예술단체와 자매결연을 통해 문화행사를 후원하거나 입장권을 구매한다.

그 중에서도 울산에 본사를 둔 현대중공업의 활약은 단연 독보적이다. 현대중공업은 10여년 전부터 조선소 담장 밖에 현대예술관과 한마음회관 등 6개의 문화·예술·복지회관을 차례로 건립해 매년 최대 150억 원을 메세나 활동에 쓰고 있다. 현대중공업의 선전에 자극받은 현대자동차, 경남은행, 농협 울산 지역본부 등 지역연고기업들이 '나눌수록 커지는' 메세나의 마법에 빠지고 있다. 이에 고무된 울산시는 최근 내년까지 50개 기업과 지역 문화예술단체간의 '1사-1단체' 자매결연을 성사시키는 청사진을 발표, 다른 도시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그렇다면 문화중심도시 광주는 어떤가. 규모면에서야 공업도시 울산과 비교할 수 없다고 쳐도, 질적인 면에서도 기업들의 문화후원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지난 2003년 몇몇 지역기업들이 주축이 돼 '광주메세나 협의회'가 꾸려졌지만, 창립 이후 성과가 거의 없어 유명무실해진지 오래다. 이렇다 보니 광주비엔날레와 같은 대형이벤트는 말할 것도 없고 저소득층 시민들의 문화향유를 지원하는 작은 행사도 후원자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21세기 메세나는 문화의 지평과 기업의 가치를 끌어 올리는 문화 마케팅의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사회의 문화충전을 위한 기업들의 큰 손이 늘어날 수록 문화광주의 위상 역시 높아질 것이다. 메세나는 문화선진국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문화생활부장 jhpark@kwangju.co.kr〉

9월 미술경매 작품 2,000여점 풀려

광란의 질주를 거듭하고 있는 미술시장에서 올해 9월은 유례없는 돈잔치가 펼쳐질 전망이다.

서울옥션이 15일과 16일 이틀간 코엑스로 장소를 옮겨 진행하는 108회 메이저경매와 컨템퍼러리경매, 자선 경매와 온라인 경매 등을 통해 1천300여점이 소개되고, K옥션이 청담동 새 사옥에서 18일과 19일 이틀간 여는 9월 경매에도 450여점이 출품된다.

여기에다 새로 경매시장에 가세한 신생 D옥션이 4일 첫 경매에서 215점을 소개할 예정이다.

양대 경매사의 이번 경매는 물량이 사상 최다 규모여서 경매도 이틀동안 진행된다. 서울옥션은 15일에는 오후 3시부터, 16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저녁까지 메이저경매와 컨템퍼러리 경매를 계속한다. K옥션도 창사 후 처음으로 이틀에 걸쳐 경매를 실시한다.

이런 가운데 김종학, 이대원, 사석원, 이우환, 오치균 등 이른바 경매 인기작가들의 작품도 이번 9월 경매에서 대거 소개된다. 작품의 완성도에 상관없이 '자고나면 값이 오르는' 상황인 이들 작가들의 작품 중 수작과 범작을 가려내는 시장의 기능이 작동하는지를 기대해볼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광주민속박물관 임시휴관

4~9일 유물 정비·시설 보수

광주시립민속박물관이 전시 유물 정비 및 시설물 보수공사에 따라 4~9일까지 6일간 임시 휴관한다.

휴관시설은 광주시립민속박물관 1,2층 상설전시실이며, 무등산분청사기 전시실(광주시 북구 충효동), 월계동 장고분(북구 첨단동) 전시관은 정상 개관한다. 전시실 대관 등 행정업무는 정상 처리된다. 문의 062-521-9041.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행복을 꿈꾸는 여인들

이정석 누드展 5일까지 대동갤러리

'추억여행'

여체의 아름다움을 통해 독특한 미감을 추구하고 있는 이정석씨가 5일까지 대동갤러리에서 전시회를 갖는다.

이씨는 8번째 맞는 개인전에서 누드 자체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여체의 아름다움을 드러냄으로써 새로운 작품경향을 선보인다. 초록, 청색을 택하고 여기에 붉은 색을 어우러지게 함으로써 보색의 조화로움을 찾고 있다.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한 뒤 '한국미술 그 중심부와 주변부전', 현대미술총람전 등에 참가, 전남대 미술학과 강사를 지냈다. 문의 062-222-0072.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런던약국사거리 ♡예매1544-0600

M관	내 생애 최악의 남자(15세) 최고급관
2관	스타더스트(12세)
3관	화려한휴가(12세)
4관	미스터 브룩스(18세)
5관	디스터 비아(12세)
6관	두사람이다(18세)/내 생애 최악의 남자(15세)
7관	라파예트(15세)
8관	만남의 광장(12세)/사랑방선수와 어머니(12세)
9관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있습니까(18세)

5월 1일부터 메가타즌 데이 할인이 종료됩니다.
•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고객에 한함):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무료팝콘 뷔페-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무료

— 온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
엔터 시네마
충장로 5가 (전화예약) 228-2700

1관	화려한휴가(12세)
2관	사랑방선수와 어머니(12세)
3관	만남의 광장(12세)
4관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있습니까(18세)
5관	디워(12세)
6관	심슨가족 더 무비(12세)
7관	내 생애 최악의 남자(15세)

www.entercinema.co.kr
* 넓고 편안 옥내·옥외 주차장 300대 *
* 빛고을 문화의 수도 엔터시네마 *

향토사랑 영화사랑 • 예매:www.joycbc.com/ 1588-7941
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하남점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하남점 (무역화관뒷편)

1관	사랑방선수와 어머니(12세)
2관	죽어도 해피엔딩(15세)/두사람이다(18세)
3관	미스터브룩스(18세)
4관	디워(12세)
5관	심슨가족 더 무비(12세)/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있습니까(18세)
6관	디스터비아(12세)
7관	내 생애 최악의 남자(15세)
8관	사랑의 레시피(전체)
9관	만남의 광장(12세)
10관	화려한 휴가(12세)

* 호남 최대 주차장 ◎매일실야 상영합니다 1588-7941
콜롬버스 하남점(10개만) 잘찬리 상영중 상담원연결 방법 →(1번 or 2번)→0번

즐거움이 가득 • www.mc12.co.kr/ 1588-9101
무등극장
충장로 1가 ☎ 232-9106

1관	두사람이다(18세)
2관	디워(12세)
3관	사랑의 레시피(전체)
4관	라파예트(15세)
5관	내 생애 최악의 남자(15세)
6관	만남의 광장(12세)
7관	심슨가족(12세)/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있습니까(18세)
8관	사랑방선수와 어머니(12세)/죽어도 해피엔딩(15세)
9관	화려한 휴가(12세)

* 리버사이드호텔 무등주차장(구 수협) 3시간 무료주차
• 탑클래스 회원만을 위한 전용창구 마련
• 전화예약 가능
• 주말에도 포인트 사용 가능
인터넷 예매 문의 1588-9101

새로운 가족 • www.primuscinema.com/www.jellcinema.co.kr •
제일 시네마
충장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

1관	화려한 휴가(12세)
2관	리턴(18세)/만남의 광장(15세)
3관	미스터 브룩스(18세)
4관	내 생애 최악의 남자(15세)
5관	사랑방 선수와 어머니(12세)/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있습니까(18세)
6관	디워(12세)

* 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공짜! *
* 무료주차 3시간
(광주 세무소 옆 호남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